

‘강남 한복판’ 대치학원·테헤란로 도보권… 현금 동원력 관건

Q 르포 | 서울 ‘역삼센트럴자이’ 가보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서는 ‘역삼센트럴자이’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단지가 역에 바로 붙은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로 나와 걸으면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도곡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교가 반경 1km 내에 밀집한 것은 물론 대치동 학원가와 롯데백화점 강남점도 걸어갈 수 있다. 일자리가 밀집한 테헤란로도 걸어서 15~20분 안팎이면 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생활하기 편한 위치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역삼동 일원 역삼동(758·은하수·76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122㎡ 87가구에 그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 등이다.

역삼동에서 신축으로는 ‘강남센트럴

수인분당선 한티역서 도보 10분 반경 1km 내에 초·중·고교 밀집 올해 마지막 ‘로또 청약’이지만 현금 최소 25억은 들고 있어야

아이파크’가 지난 2022년 입주한 이후 처음이며, 향후에도 몇 년간 입주물량이 없는 귀한 신축이다. 강남센트럴아이파크이전엔 ‘역삼자이’와 ‘테헤란아이파크’가 각각 2016년, 2014년 입주했음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공급물량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강남구 전체를 놓고 봐도 내년 도곡동 ‘래미안레네투스’ 308세대 한 곳만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단지 자체는 크지 않지만 조경과 편의시설은 모두 마련됐다. 조경 공간에는 중앙광장을 비롯해 리빙가든과 테마형 놀이공간인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독서실, 코인세탁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 모형도.

/안상미 기자

등이 들어선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무려 2대다.

건본주택은 사전 예약으로 시간당 20팀만 들어와 봄비지 않고 둘러보기 편했다. 강남 핵심입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사전예약은 빠르게 마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객들은 모형도와 평면도를 꼼꼼히 살펴면서도 분양물량이 워낙 적다보니 경

쟁률이 치솟을까 우려했다.

건본주택에는 84㎡A 타입과 122㎡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유닛이 마련됐다

국민평형인 84㎡는 대부분 선호하는 판상형에 4베이 구조다. 대면형 주방에 안방 드레스룸 등으로 수납공간이 마련됐고, 오픈발코니로 실사용 공간이 넓어졌다. 122㎡ 타입은 4베드룸·2욕실 구조로 확실히 거실부터 주방, 드레스

룸 등이 모두 확보되어 있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되어 전용면적별 최고가 기준 59㎡ 20억1200만원, 84㎡ 28억1300만원, 122㎡ 37억9800만원이다. 2022년에 입주한 ‘강남센트럴아이파크’의 전용 59㎡가 지난달 32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입점한 ‘역삼래미안’의 경우 2005년 입주한 구축임에도 전용 80㎡가 지난 10월 35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마지막 ‘로또 청약’이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로 현금 동원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9·7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의 40%만 가능하고, 10·15대책으로 잔금시 59㎡는 최대 4억원, 84㎡와 122㎡는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84㎡라면 현금 25억원, 122㎡는 현금 35억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 한다.

투기와열지구에 청약과열지역으로 전매제한 3년에 거주무기기간 2년, 재당첨제한 10년이 적용된다. 입주는 오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스타트업, 성장단계 최적화 맞춤 금융지원 강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본연의 비즈니스 집중환경 만들 것”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도전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5 허브 데이(HUB Day)’에서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금융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스타트업이 본연의 비즈니스와 기술 개발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 허브 데이는 KB스타터스 참여 기업과의 협업·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스타트업 대모데이다. KB금융은 정부의 육성·투자 기관, 창업 지



지난 1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2025 허브 데이(HUB Day)’에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왼쪽 세번째),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두번째), 이재근 글로벌사업부문장(왼쪽 열번째),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열한번째)와 ‘KB스타터스’ 참여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원 기관,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양 회장과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 이재근 글로벌사업부문장,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와 KB스타터스 참여 기업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여해 혁신 기술 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KB금융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5년 3월 금융권 최초의 핀테크랩

인 ‘KB 이노베이션(Innovation) HUB센터’를 설립했다. 현재까지 총 394개에 이르는 초기 창업 기업을 KB스타터스로 선정·육성하고 있다. 기술 검증부터 사업화·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모험자금을 공급하고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제공해 누적 투자 3044억원, 제휴 422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그룹 차원의 일원화된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KB국민카드의 ‘퓨처나인’ 프로그램과 KB스타터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와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 스타트업과의 실질적 협업을 더욱 강화해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성장이 곧 KB금융의 경쟁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K-드론’ 수출 368억 연평균 59.4% 성장세

국토부, 美·독일 등 30개국 수출

‘한국산’ 드론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 해외수출이 368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32억원 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9.4%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국은 13개국에서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즈베키스탄, 독일, 싱가포르 등 30개국으로 늘어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폭넓게 분포했다.

수출 품목도 다양해졌다.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기체, 모니터링·촬영용 기체, 배터리, 비행제어기(FC) 등 기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해 동력발전기 등 시설점검 서비스, 어군탐지 등 소프트웨어와 드론 활용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이는 국토부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토부가 국내 우수기업을 홍보하고 외국기관과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에서 드론 로 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10개 국가에서 해외 로 드쇼를 개최해 올해는 미국과 일본에서 열렸다. 또한 지난해 카자흐스탄, 올해 가나 현지에 현지 드론 아카데미를 개설해 외국 드론 관련자들과 우리 기업이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올해 17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다. 작년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에 이어 올해 제62회 무역의날 300만불과 200만불 수출의탑을 드론 기업이 수상하기도 했다. 나아가 올해 29개 국과 MOU 등 업무협약 59건을 체결했으며, 현지 실증사업(PoC) 20건을 추진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韓, 위기대응 능력 충분… 필요시 선제조치”

이억원 금융위원장
“3대 금융 대전환 가속화 위해 ‘금융시장 안정’ 뒷받침 필요”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위기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란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반기 우리 경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확대됐지만,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면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낮은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고려한다면 우리 경제는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위기대응 정책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억원 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던 구

조적 문제들도 6·27 가계부채 관리대책,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축으로 하는 ‘3대 금융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